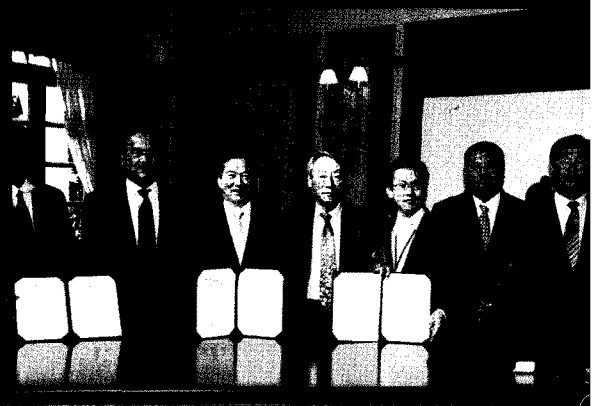


Photonics Movements

광산업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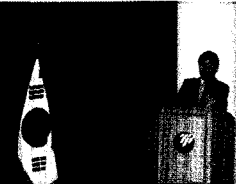
광융복합 산업전망 컨퍼런스



▼ 광주테크노파크
유동근 원장 취임

광주테크노파크 제5대 유동근 원장 취임

2010. 12. 21



▼ 한국과 베트남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이해각서 체결



참여와 소통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산업별 산학연협의회의 날' 워크숍 개최

광주광역시(경제산업정책실)가 주최하는 제1회 산업별 산학연협의회의가 협의회 총괄운영기관인 한국광산업진흥회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로 전남 나주 중흥스파&리조트에서 행사를 가졌다.

지난 1년간의 협의회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산학연 대표자 및 회원 간 소통과 협력방안 및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의 핵심은 '2012년 국비신규과제 발표회'를 통하여 9개 협의회 총 11개 연구기획과제를 발표하였다.

〈9개 협의회 11개 연구기획 과제〉

- 광응용(2) : 광자기술기반 바이오-메디컬 융합산업 육성인쇄기반 OLED산업 기반구축 사업
- 광 통 신 : 클라우드서비스기반 스마트산업단지 구축
- 전 자 : 웰니스 융합 신산업 육성사업
- 자 동 차 : 친환경자동차 전장부품 성능평가 기반조성
- 에 너 지 : BGT 상용화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 L E D : 차세대 그린 LED Light-Art 시스템 구축
- 디자인(2) : 광융합디자인연구개발, 디자인박물관 건립
- 금 형 : 정밀금형 현상전문가 육성
- 우 리 밀 : 우리밀 전용 제분공장 건립, 공정시스템 구축

초청강연에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문승일 교수가 '녹색성장의 꽃, 스마트 그리드'라는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과 국내외 스마트 그리드 산업의 현황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져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발표회를 거친 이 과제들은 각 협의회별 기획위원들의 보완과정을 거친 후 2012년 국비과제 채택을 위하여 2011년 상반기 중 중앙부처 실·국장 초청 설명회 및 중앙부처 방문 활동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강운태 시장, 4억달러 규모 LED가로등 해외수주 지원

- 광주 LED업체, 말레이시아 말라카주 지능형 LED가로등 부품 납품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미국 투자유치에 이어 LED조명 해외수

출 활동 지원에 직접 나섰다.

'10년 11월 17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는 길에 말레이시아 말라카주(주 수상 다득 루스탐)의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조성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한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허영호, LG이노텍 대표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말라카주를 방문해 두 도시간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두 도시 정상간 우호교류협정 체결에 이어, 말라카주 녹색성장 도시 조성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한국광산업진흥회와 말라카 주정부 투자진흥청, PTG(한국광산업진흥회 글로벌 마케팅대행업체) 등 3개 기관은 말라카주의 지능형 LED 가로등 교체, 말라카강(4.5km) 경관조성사업에 광주지역 업체의 LED 제품을 사용키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글로벌마케팅 대행업체인 PTG와 PTG가 말라카주 녹색성장도시 사업참여를 위해 설립한 APG를 통해 녹색성장도시 조성사업에 참여중이다.

말라카주는 인구 80만명 정도의 말레이시아 2번째 규모의 도시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전통이 오래된 도시이며, 문화유산과 관광명소가 많은 정원도시로 2008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도시로 지정 받았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라카주의 천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말라카주를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로 지정했다.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우선 전 시가지의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총 280만개 중 1단계인 11만2,000개 규모(4억달러)]하고, 말라카강의 경관을 LED경관조명으로 바꾸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과 시가지 광고시설을 모두 LED로 교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단계 사업(진행중) 광주 LED업체 참가 규모 : 시가지 가로등 11만2,000개(4,600억원규모, 총 280만개 중), 말라카강 4.5km 경관조명(48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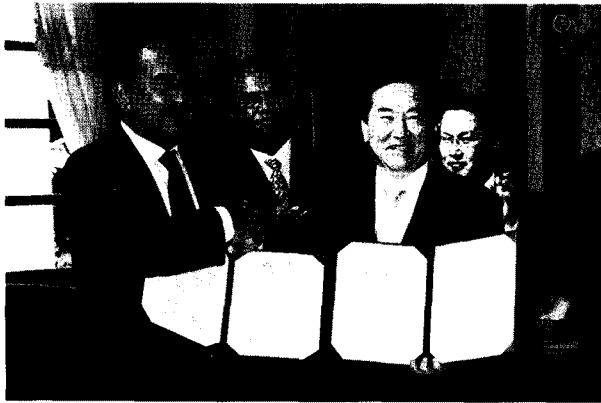
이와 같은 말라카주의 녹색성장 도시 조성사업에 광주의 주력 산업인 광산업과 LED 산업의 우수한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지난해부터 말라카주와 협상을 시작했지만 계약체결 단계에서 납품단가 인하 등의 이유로 침체상태에 있자 광주시에 지원을 요청, 강 시장이 직접 말라카주를 방문 주 수상과 협상을 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두 도시간 우호관계 구축과 LED사업의 주체들이 돈독한 신뢰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말라카주의 공공

기관 및 광고시설 LED 교체 사업에도 광주지역 업체들의 LED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말레이시아 전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LED보급 확산도 기대된다.

※실제로 한국광산업진흥회는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 해외보급 사업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최근 국내 LED 조명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중국 등 저가 제품이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활동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며, 향후 우리나라 LED 조명업체의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호교류협정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말레이시아 말라카주 수상 관저에서 루스탐 수상과 우호교류협정을 맺었음.



투자MOU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10년 12월 16일 오전 말레이시아 수상 관저에서 LED산업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왼쪽부터 람리 말라카 투자진흥총괄, 루스탐 말라카주 수상, 강운태 시장, 조규중 광산업진흥회 부회장, (주)포토닉스 트레이드그룹(PTG)공대원 대표이사, 피다우시 말레이시아 연방정부 녹색성장위원, 강원기 문화정책 실장)

2010 광융복합 산업전망 컨퍼런스 및 광산업 산·학·연 전문가 Pool 발대식 성황리에 개최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허영호, LG이노텍 대표)는 '10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2010 광융복합 산업전망 컨퍼런스'와 함께 '광산업 산·학·연 전문가 Pool 발대식'을 지식경제부 조영신 전자정보산업과장, 광주광역시 강계두 경제부시장, 한국광산업진흥회장, 한국광학회장, 한국광기술원장, 고등광기술연구소장, LED반도체조명학회장, 한국광전자학회장, 현대통신, 주성엔지니어링 등 약 250여명의 광산업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광산업 산·학·연 전문가 Pool 발대식에서는 국내 광산업을 대표하는 산·학·연·관 대표 10명이 공동 서명식을 개최하고 “광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육성 및 실행전략 수립”과 “광산업체에 대한 산학연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광산업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외에 2010 광융복합 산업전망 컨퍼런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T네트워크연구소,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건설연구원 등 광산업분야 전문연구기관과 광주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단국대학교 등 대학 및 금호전기, 포스코LED, 디스플레이뱅크 등 산업체 근무 전문가들이 14개 주제발표자로 참석하여 광산업 융복합과 관련한 국제적인 기술 및 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전개하는 등 큰 호평을 얻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허영호 회장은 “본격적인 무한 경쟁체제로 돌입한 세계 광산업 시장에서 국내 광산업체들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국광학회와 공동으로 광융복합 산업전망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축이 되어 광산업의 미래전략 기술개발과 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 육성정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인바 국내 광산업관련 산·학·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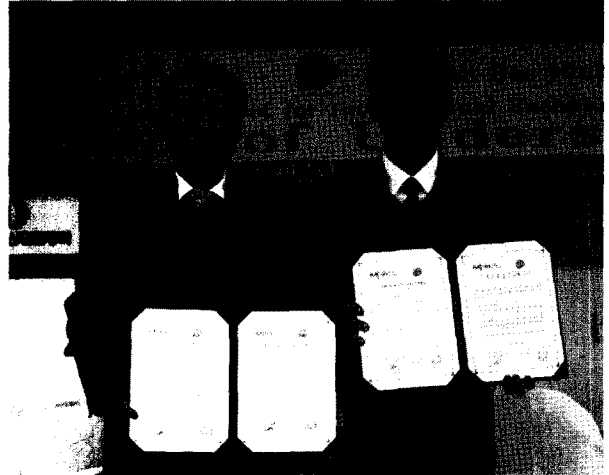
한·베트남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한국광산업진흥회(www.kapid.org, 회장 허영호), 베트남 박닌성 공업지역관리위원회(IZA, Industrial Zones of Bac Ninh Province)간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국제교류협력센터에서 지난해 12월 16일에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광산업진흥회와 베트남 박닌성과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양국)우위증진과 투자유치 및 광산업관련 기술·제품 수출 지원 등을 위해 체결한 것이다.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상호 우위 증진 뿐만 아니라, 광주지역의 광산업 첨단기술 교류 및 베트남 투자 유치 등 향후 적극적인 산업교류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업무협약 이후에는 베트남 박닌성에서 광주 지역 기업체 관계자 150여명을 초청, 베트남 투자유치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 기업체들의 베트남 진출, 무역 등 소중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도 갖었다.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의 동쪽에 위치한 박닌성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제 문화의 중심도시이며, 2015년까지 첨단산업의 선진국과의 우호적 교류를 통해 베트남 대표 공업 성(Industrial Province)이 되고자 그 첫 번째로 우리나라 광주를 찾게 되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양국이 지속적인 교류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광주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 취임

- 미래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경영전략 수립 등 6대 핵심과제 발표
- 대외환경변화 따른 사업운영방향 조정 절실한 시점

(재)광주테크노파크 제5대 원장으로 유동국 원장(경영학박사)이 '10년 12월 21일 취임식을 가졌다.

유동국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광주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고 안주하기 보다는 미흡했던 점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유동국 원장은 "세계화와 기술혁신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 지역 전략산업에서 광역 선도산업으로 정부정책의 중심 추 이동,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 제시 등 최근 테크노파크를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새로운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기회요인이 될 것이고, 피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원장은 이어 "지금이야말로 세계화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과 도시 단위 경쟁에 대응하는 지역발전전략 수립,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산업정책 발굴, 민선 5기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방향 조정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유동국 원장은 ▲광주 미래의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경영전략 수립 ▲광주산업의 그랜드 디자이너 역할을 수행할 조직과 기능 강화 ▲현장 밀착형 비즈니스 기능 강화를 통한 전방위적인 기업지원 ▲연구·기획기능 전문화 ▲독립성과 최상의 Quality가 보장되는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경영시스템과 자립기반을 구축 등 6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기 구축된 4개의 센터를 미래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센터로 강화시켜 미래 수요에 대비하는 Post-Project를 유지할 것과 창업에서 스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육성의 선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유망기업유치를 위한 2단지 조성을 위해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적극적 사업유치를 통한 경상비와 인건비 확보,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보조금 확보, 장비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익창출, 신규 수익원 발굴 등 확고한 재정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원장은 "6대 핵심과제는 어느 한쪽의 의지와 강요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으며 모두가 공동 운명체로서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해야만 실천이 가능한 것이다"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유원장은 임직원들에게 작가이자 화가인 폴 호건(Paul Horgan)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도 없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묘사한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말을 인용해 "통찰력을 갖춘 마음의 눈을 계발하는데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동국 원장은 ▲전남대학교 경영학박사 ▲전남대학교 경제학박사 수료 ▲(사)광주정책연구원 원장 ▲전남매일 신문사 회장(발행인) 등을 역임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2011년 조직 개편

한국광산업진흥회(www.kapid.org, 회장 허영호)는 사무국 조직을 운영지원 업무와 사업수행업무 기능으로 분리하여 3부체제로 확대하고 하부 조직을 6개 팀제로 개편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2011년도 경영목표로 「공격적인 경영」과 「조직혁신」을 제시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담당 자부(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LED보급·연구개발지원부를 신설하여 국내외 LED보급사업, 회원사간 컨소시엄을 구축한 R&D 사업 참여 추진 등 회원사 직접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 기획·발굴로 광산업체의 참여 확대를 2011년말까지 현재 225개사인 회원사를 280여개업체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향후 KAPID2020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2011년도 포부를 밝혔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조직 구성도〉

